

호(號)의 개념과 작호 고찰

권 익 기*, 조 민 관**

목 차

- I. 머리말
- II. 호의 의의와 역사
- III. 호의 범위와 유형
- IV. 작호 분석
- V. 맺음말

국문초록 | 본고는 호의 개념과 역사 속 인물의 작호를 주로 살폈다. 최광의나 광의도 존재하지만 호란 허물없이 사용하는 성인의 이름이므로 협의 개념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협의호도 범위가 넓어서 호 종류나 작호자, 짓는 방식, 작호 유형으로 구분 가능하다.

호는 상층 남성이 두 글자로 된 것을 1인당 1개를 주로 가졌고, 삼국시대에 시작된 후 점차 늘어나서 조선시대 말 정점에 달했다가 그 후 급격히 줄어들었다. 협의호 중에서 호 종류는 최협의호가 74.8%, 당호 22.2%, 별호 3.0% 비중이었고, 작호자로 분류하면 자호가 89.3%인 반면 아호는 8.3%에 그쳤으며, 작호 유형은 소지, 소거, 소우의 비중이 높았다.

정리해보면, 첫째 작호는 어렵지 않아서 누구나 할 수 있다. 둘째 작호 유형은 소지, 소인, 소축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시대별로 변화하고, 셋째 최협의호의 증가와

* 權益棋 대한성명학연구원 수석연구원 kwonikki@naver.com

** 趙珥寬 동명대학교 동양문화학과 강사 jbulgul@daum.net

투고일: 2026. 4. 30. 심사완료일: 2026. 6. 8. 게재확정일: 2026. 7. 11.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6.50..7>

당호의 소멸, 별호의 명맥 유지가 예상된다. 넷째 자호보다 아호의 비중이 높아지고, 다섯째 알려진 것과는 달리 차호보다 작호가 많다.

핵심어 | 호, 작호, 당호, 별호, 자호, 아호, 성명학

I. 머리말

우리 이름¹⁾의 종류는 태명(胎名)과 아명(兒名), 본명(本名), 자(字), 호(號), 택호(宅號), 시호(諡號) 등 생애주기에 따른 것이 있고, 별명(別名)과 당호(堂號), 보명(譜名), 필명(筆名), 예명(藝名), 교명(敎名), 아이디(ID), 닉네임(nickname) 등 용도가 특정된 것도 존재한다. 또한 필명(筆名)과 예명(藝名), 법명(法名), 세례명(洗禮名), 기명(妓名) 등 특정집단이 사용하는 이름은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많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이름은 대표적인 본명과 부명(副名)인 자, 별칭인 호, 그 이외 유형으로 많이 분류한다. 본명과 자, 호를 근본유형으로 묶고, 짧은 기간 사용하는 태명과 아명, 별명 등의 단기유형과 사용용도가 특정되는 용도별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또한 본명과 자만 근본유형으로 분류한 후, 호와 별호, 당호, 택호, 필명, 예명 등을 호유형으로, 이외 태명과 아명, 아이디, 닉네임 등을 기타유형으로 나누기도 한다.²⁾

이 중 1909년 민적법(民籍法) 제정으로 우리 모두가 갖게 된 본명은 가장 기본적이고 공식적인 이름으로, 이외 모든 이름을 이칭(異稱)이라 할 정도로 그 비중은 절대적이다.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역학계(易學系) 작명가 중심

1) 이름 중 가장 대표적인 인명은 성씨(姓氏)와 이름[名]을 합한 광의 성명(姓名)과 성씨를 제외한 협의 이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고에서 이름이란 “성씨를 제외한 이름”인 협의 인명을 말한다.

2) 권익기, 「인명의 종류 고찰-역사와 유형별 종류, 논란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82,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22, 16-17쪽.

으로 개운(開運) 주장까지 더해지면서 연구나 관심 또한 본명에만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근본유형 중 자(字)와 호(號)도 삼국시대부터 시작하여 조선시대 말 상층인 양반의 대부분이 사용한 전통적인 이름이다.³⁾

하지만 일제강점기부터 경명사상이 약해지고 피휘도 사라지면서 자는 명맥이 끊긴 반면, 존칭 성격이 강한 호는 일부 집단을 중심으로 현재도 상당히 많이 사용 중이다. 유명인물 중 이율곡(李栗谷)과 한석봉(韓石峯), 허난설헌(許蘭雪軒), 김소월(金素月), 이육사(李陸史), 박목월(朴木月) 등은 본명보다 호가 더욱 알려져 있다. 넓게 보면 호는 본명과 자를 제외한 모든 이름을 포괄하므로 범위 또한 넓다. 본명과 자는 타인이 짓지만 호는 실상을 반영하여 스스로도 많이 짓기 때문에 호를 통해서 당사자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중요성이 배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호는 유형뿐만 아니라 협의호도 범위에 따라서 포괄하는 이름의 종류가 다르고, 구분 기준조차 다른 종류의 이름을 같은 명칭으로 사용하는 등 개념의 혼선도 존재한다. 특히 작호는 본명에 준한다고 언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작호만을 다룬 문헌에서도 작명법이 작호법으로 소개되고 있을 뿐 별도의 작호법을 찾기조차 힘들다. 심지어 ‘작호는 어떠한 방법도 특정한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⁴⁾고도 주장된다.

본명에 미치지 못하지만 호는 이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실상 반영, 오래된 역사뿐만 아니라 개념 혼선, 불분명한 작호 등으로 필요성은 존재하나 선행연구는 상당히 부족하다. 인명을 살피면서 하나의 종류로 언급되거나 특정 인물의 호만 다룬 선행연구는 다소 있지만, 호의 의의와 역사, 범위와 유형, 종류 등을 바탕으로 작호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이중 1970년 강헌규의 「한국인의 자 및 아호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신용호

3) 신용호, 「선대사류의 작호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7, 24-26쪽.

4) 한정주, 『호, 조선 선비의 자존심-조선 500년 명문가 탄생의 비밀』, 다산초당, 2015, 606쪽.

(1977) 「선대사류의 자호연구」, 강희숙(2016) 「현대 한국인의 호 사용 양상 연구」, 심경호(2018) 「이름과 호의 한자문화」 등의 논문과, 강현규·신용호(1990) 『한국인의 자·호 연구』와 이를 증보한 신용호·강현규(1997) 『선현들의 자와 호』, 한정주(2015) 『호, 조선 선비의 자존심』, 심경호(2022) 『호, 주인공의 이름』 등의 문헌이 돋보이지만 부족한 부분도 발견된다.

이에 본고는 호의 개념과 작호를 살펴보기 위해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I 장 머리말에 이어서 II 장은 호의 의의와 역사를 개괄하여 먼저 살핀다. III 장에서는 포함되는 이름의 종류를 중심으로 최광의와 광의, 협의로 구분하여 호의 범위를 검토한 다음, 협의호를 세부 호 종류와 작호자, 짓는 방식, 작호 유형으로 나누어 호의 개념을 파악한다. 이어서 IV 장은 우리 역사 속 인물의 호를 III 장 분류에 시대 구분까지 더하여 총괄 및 비교하면서 작호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V 장에서는 이를 요약, 정리한 후 시사점을 밝히면서 글을 맺기로 한다.

II. 호의 의의와 역사

1. 의의

『표준국어대사전』은 호를 “본명이나 자 외에 쓰는 이름. 허물없이 쓰기 위하여 지은 이름”⁵⁾으로 정의하고, 신용호도 이와 비슷하게 “명(名)이나 자(字) 외에 누구나 허물없이 부를 수 있도록 지은 칭호”⁶⁾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한정주는 “살아가면서 뜻한 바가 있거나 마음이 가는 사물이나 장소에 따라, 또는 어떤 의미를 취해서 제멋대로 지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지어줄

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호」(<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6) 강현규·신용호, 『한국인의 자·호 연구』, 계명문화사, 1990, 29쪽.

수도 있는 호칭”⁷⁾이라고 작호 중심으로 보다 상세히 설명했다. 이를 종합하면 ‘호란 허물없이 사용하는 성인의 이름’이다. 부연하면 ‘호는 본명과 자를 대체하는 것으로 성인이 된 후 허물없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과 타인이 언제라도 실상을 반영해서 제멋대로 짓는 호칭’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전통적 공식 이름인 본명은 공부(公簿)나 족보에 올리면서 관(官)에서 주로 사용하였다. 우리는 경명사상(敬名思想)과 피휘(避諱)의 실명경피속(實名敬避俗), 즉 실명을 공경하여 사용을 피하는 풍속 때문에 과거 관례 이후 부명인 자를 지었다. 성인이 된 후 본명을 부르면 무시하는 것이기에 군사부(君師父)로 대표되는 윗사람에게만 본명을 말하고 그들만이 본명으로 불렀다. 그 후 자까지 경명대상에 포함되어 친구나 손아래만 사용하게 되면서 전통사회에서 누구에게나 허물없이 사용하는 이름은 호가 자리 잡았다. 본명과 자, 별명, 시호, 태호 등 대부분의 이름은 타인이 짓는 반면, 호는 자신 혹은 스승이나 선학, 친구 등 가까운 타인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지을 수 있다. 깨달음이나 목표, 의지, 인연 있는 곳, 사물, 품성 등의 실상이 반영되어 정체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호만 봐도 당사자를 파악할 수 있는 특징도 있다.

호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이는 관료를 비롯한 학자, 문인 등 그 당시 상층인 양반 남성에게 해당하는 얘기일 뿐이다. 장현광(張顯光, 1554~1637)은 “용렬한 자가 높은 선비의 호를 무릅쓴다면 스스로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남에게 부끄러워 어쩔 것이고, (...) 우리의 산과 숲과 샘을 욕되게 하리라.”⁸⁾라고 주장하며 상층 남성 외에 호를 갖는 자를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사회 활동이 많지 않아서 두 글자 한자 이름도 거의 갖지 않았던 여성과 하층인 천민, 그리고 중층인 중인이나 상민 남성까지도 전통 사회에서는 호를 가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7) 한정주, 앞의 책, 4쪽.

8) 심경호, 「이름과 호의 한자문화」, 『어문연구』 46(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8, 352쪽.

본명과 자는 하나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명명 후 필요하면 개명하여 새로운 이름을 가졌지만, 호는 언제든지 동시에 여러 개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명명만 있고 개명은 없다. 추사(秋史), 완당(阮堂) 등의 호를 가진 김정희(金正喜, 1786~1856)는 오제봉(1989)이 503개⁹⁾, 김은미(1998)가 320개¹⁰⁾를 주장했을 정도로 호를 많이 가진 대표적 인물이다. 그러나 이 많은 호 중 1~2회 사용에 그쳐서 사회적으로 공인받지 못한 것까지 호로 인정할 수는 없다.

호도 본명과 같이 두 글자가 가장 많으나 당호는 세 글자가 대부분이다. 오제봉(1984)은 릉(泐), 염(髯), 파(婆) 정(靜) 등 한 글자도 주장했으나¹¹⁾ 이는 실상 반영이 곤란하기에 예외적이고 본고에도 없었다. 김승호(2000)는 『김정희법서선집(金正喜法書選集)』에서 ‘김정희인의신지전추사무제군자발봉완인신(金正喜印宜身至前追事無題君自發封完印信)’ 열아홉 글자까지 주장했을 정도¹²⁾로 호의 글자 수는 제약이 없다.

당호를 차용한 옥려지속(屋廬之屬)이 37.9%, 지명을 차용한 경우인 산릉암곡지속(山陵巖谷之屬)과 촌리전야지속(村里田野之屬), 하해천연지속(河海泉淵之屬)이 42.4%를 차지할 정도로 작호(作號)보다 차호(借號)의 비중이 높은 것도 호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¹³⁾ 아울러 호는 글자 전체가 하나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각각의 글자가 합쳐져서 하나의 뜻 혹은 하나의 호가 여러 개의 뜻을 갖는 경우도 많다.¹⁴⁾

9)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호」(<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3656>)

10) 김은미, 「추사 김정희의 호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부록2.

11) 오제봉, 『청남고도관』, 일지사, 1984, 203쪽.

12) 김승호, 『김정희법서선집』 권7(하), 대명, 2000, 124쪽.

13) 신용호, 앞의 논문, 54-55쪽.

14) 심경호, 『호, 주인옹의 이름』, 고려대 출판문화원, 2022, 49-51쪽.

2. 역사

이름의 한 종류인 호는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다만 역사서인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자비왕대(慈悲王代, 458~479) 백결(百結, ?~?)의 “집이 매우 가난하였다. 옷을 백 군데나 기워, 마치 메추라기를 매단 것과 같아서, 그때 사람들은 호를 동쪽 마을의 백결선생이라 했다.”¹⁵⁾라는 별명을 별호로 받아들인 것이 우리나라 호의 시작이다.

그러나 호 역시 전국시대(戰國時代, BC475?~BC221)에 은사(隱士)들이 자신의 성명을 감추기 위해 사용하면서 중국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그 후 송대(宋代, 960~1279)에 관료들이 가졌고, 명·청대(明·清代, 1368~1911)에 이르러서는 대부분 갖게 되었다. 중국에서 호는 서재나 정자, 별장, 주거, 출생지 등에서 연유해서 작품의 서명에 많이 사용하다가 자까지 피휘하게 되면서 송대부터 누구나 거리낌 없이 부를 수 있는 호칭이 되었다.¹⁶⁾

이런 중국 경향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서¹⁷⁾ 『삼국사기』 열전에서 호는 위 백결과 원효(元曉, 617~668)의 소성거사[小性(姓)居士], 성각(聖覺)의 거사(居士)가 확인된다. 『삼국유사(三國遺事)』도 살펴보면, 의자왕(義慈王, 641~660)의 해동증자(海東曾子) 및 강수(强首), 견훤(甄萱, 867~936)의 상보(尙父)도 보인다. 법명이나 법호로 알려진 진흥왕(眞興王, 540~576)의 법운(法雲)과 혜공(惠空)의 부귀화상(負簣和尚), 혜통(惠通)의 왕화상(王和尚), 궁예(弓裔, ?~918)의 선종(善宗) 등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10세기 고려 초까지 호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11~13세기는 문인들 중 일부만 호를 가졌다. 그 후 주자학의 유입과 함께 호의 사용이 본격화된 14세기부터 대폭 늘어나기 시작하여 조선시대 말 정점에 달하였

15) 『三國史記』卷四十八「列傳」第八, <百結先生>, “家極貧, 衣百結, 若懸鵝, 時人號爲東里百結先生.”

16) 于大成, 『文字文學文化』, 台北: 文鏡文化事業公司, 1982, 141~142쪽.

17) 강현규, 「한국인의 자 및 아호에 관한 연구」, 『논문집』 7(2), 공주교대, 1970, 78쪽.

다.¹⁸⁾ 윤필병(尹弼秉, 1730~1810)은 “오언시만 지을 줄 알아도 호를 지니고 집 한 칸만 있어도 호를 가지며 주운 돌이 주먹만 해도 마음에 들면 호로 쓰고 옛사람의 말이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맞으면 호로 삼으니, 호라는 것이 천하에 가득하여 개백정이나 비단장수도 호를 가지게 되었다.”며, 실상과 동떨어진 상층의 호와 중·하층의 호 사용도 비판했다.¹⁹⁾ 하지만 그도 호가 없다는 뜻의 ‘무호(無號)’를 호로 가졌다.

일제강점으로 군주제가 사라짐에 따라서 강제력을 상실한 피휘(避諱)가 없어지고 경명사상도 약해지며, 1909년 민적법(民籍法)으로 등록이 강제화된 본명이 더욱 공식적인 이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어른 이름인 자와 호의 필요성은 감소한다. 자는 일제강점기에 줄어들어 국권 회복 후 명맥이 끊긴 반면, 광의호인 시호, 봉호 등은 군주제 소멸과 함께 일시에 사라졌고, 법명이나 법호는 협의호 기능이 없어지면서 특정 집단의 이름으로 남아 있으며, 택호는 농촌 지역에서만 일부 사용 중이다. 1920년대 본인을 감추기 위한 문인이나 언론인의 글에 가명이었던 필명은 공개된 문필명으로 자리 잡았고, 일제강점기 예술인의 활동명으로 시작된 예명도 연예인의 활동명으로 더욱 널리 사용되고 있다.²⁰⁾

중국에서 호는 은닉의 수단으로 시작된 후 자까지 피휘하게 되면서 널리 사용된 이름이다. 우리 역시 이와 같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은닉 수단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공자(孔子)의 자 중니(仲尼)의 중(仲)자도 피휘하지 않은 것 등을 보면 자의 피휘도 일반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호를 갖게 되면 선생으로 불릴 정도로 명예가 발생되었기에 사용이 정점에 달한 후 전반적 쇠퇴와 함께 일부 종류는 소멸도 했지만, 호는 여전히 문인이나 예술인, 학자 등의 상당수가, 일반인도 일부가 사용 중이다. 또한 호는 ‘자격이나 신분의 표상

18) 신용호, 앞의 논문, 26쪽.

19) 심경호, 앞의 책, 10쪽.

20) 권익기, 앞의 논문, 26-27쪽.

역할도 하지만 당사자를 이름만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위신의 표지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활발하게 사용될 여지가 높다.²¹⁾

Ⅲ. 호의 범위와 유형

1. 범위

호는 세간뿐만 아니라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본명과 자를 제외한 모든 이름을 포괄하면서 동의어로는 별명(別名)과 별호(別號), 아호(雅號)가 소개된다. 하지만 본명이나 자를 대체하는 성인의 호칭으로 제한하는 것이 호의 일반적 의미이고, 별명은 이름의 한 종류, 별호와 아호는 호의 한 종류이므로 동의어로 보기도 곤란하다. 이에 우리는 호의 범위를 먼저 알아본 후 그 범위 내에 포함되는 이름의 종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우리는 이름을 근본유형과, 호유형, 기타유형으로도 나누었다. 호유형은 이름의 한 종류인 호보다는 넓고 본명과 자 외의 모든 이름을 포괄하는 호의 범위보다 좁기에 본고는 이를 기준으로 협의와 광의, 최광의로 나누어 살핀다.

1) 최광의

세간에서 호의 범위는 아주 넓게 본명이나 자를 제외한 모든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역시 '본명이나 자 이외에 쓰는 이름'²²⁾으로 아주 넓게 최광의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본명이나 자 외의 이름

21) 강희숙, 「현대 한국인의 호 사용 양상 연구」, 『한국사전학』 28, 한국사전학회, 2016, 23-24쪽.

2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호」(<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중 태아의 이름인 태명과 어릴 때 사용하는 아명은 그 누구도 성인의 이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호가 아니다. 가상공간에서 활용되는 아이디와 닉네임도 일상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호로 인정할 수도 없다.

별명과 당호, 택호, 시호, 필명, 예명 등 협의호와 유사한 이름을 포괄하는 호유형이 존재하지만, 이 호유형과 본명과 자의 근본유형 이외 기타유형도 존재한다.²³⁾ 호는 본명과 자의 별칭으로 그 비중이 상당하지만 본명과 자, 그리고 호에 포함할 수 없는 이름의 종류와 유형도 존재하므로 호의 범위를 최광의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

2) 광의

호유형을 말하는 광의호는 협의호 및 다른 용도로 지어져서 협의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별명, 당호 등이 있다. 또한 짓는 방법과 사용 집단, 용도 등이 달라서 협의호는 아니지만 광의호에는 포함되는 택호와 시호, 봉호, 필명, 예명 등도 존재한다.

별명(別名)은 자신의 용모나 성격 등의 특징을 타인, 주로 친구들이 구체화한 이름으로 저속한 의미가 많아서 대부분 호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호의 동의어가 아니다. 그러나 별명 중에는 협의호에 포함되는 별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므로 일부는 협의호에 속한다. 『표준국어대사전』도 호의 동의어로 별명을 들고 있지만, 별명은 별칭(別稱)이나 이명(異名), 닉네임(nick-name)으로 볼 수는 있으나 호라고 할 수는 없다. 당호(堂號)는 호와 같이 경계 어구나 채득 실상, 애호 물건, 거주지 등으로 지어서 성찰의 공간으로 삼았던 애초 당우(堂宇)의 명칭이다.²⁴⁾ 이를 빌려서 협의호로 많이 사용하므로²⁵⁾ 호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당호 역시 호로 사용하지 않으면 집 이름일

23) 권익기, 앞의 논문, 16-17쪽.

24) 심경호, 앞의 논문, 357쪽.

25) 신용호, 앞의 논문, 42쪽.

뿐이다. 당호는 차용한 것만 협의호이고 차용하지 않으면 최광의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택호(宅號)는 타인을 높여서 그의 집이나 부인과 남편, 가정을 부르는 이름으로 지역사회의 호칭이다. 풀이하면 집[宅] 이름[號]이지만 택호는 그 집이나 가정의 명칭으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당초부터 광의호의 하나일 뿐 협의호는 아니다. 광의호에는 국왕을 비롯해 고관이나 선비들이 죽은 후 국가가 수여하는 시호(諡號)도 있고, 공이 많거나 중요한 인물에게 국왕이 생전에 수여하는 작호, 군호 등의 봉호(封號)도 속한다. 시호와 봉호는 국가가 개인에게 내리는 것으로 그 집이나 집안의 호칭으로 수대에 걸쳐서 사용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기에 호로 알려진 경우가 많지만 광의호인 호유형이지 협의호로 볼 수는 없다.

문인의 작품 활동에 사용하는 필명과 예술인의 활동명인 예명은 해당 집단의 특징 반영 외 작명 방법 등이 상당히 같아서 협의호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용집단이 필명과 예명을 계속 사용하면서 협의호가 아닌 광의호에만 주로 포함한다. 그리고 근본·호 이외 기타유형 중에는 광의호가 아닌 태명과 아명, 아이다, 닉네임 등도 있지만, 종교명인 범명과 범호, 세례명 등은 광의호에 포함된다는 견해도 많다.

3) 협의

최광의호는 본명이나 자 외의 모든 이름이라고 하지만 기타유형과 성인 이름이 아닌 태명과 아명, 일상의 언어가 아닌 아이다 닉네임 등도 존재하기 때문에 최광의 범위까지 호를 확대할 수는 없다. 광의호 중에는 다른 용도로 지어져서 호로 받아들이지 않는 별명과 당호 등도 있고, 호유형이나 짓는 방법과 사용 집단, 용도 등이 달라서 호라고 하지 않는 택호나 시호, 봉호, 필명, 예명 등도 존재하므로 호의 범위로 보기 곤란하다. 따라서 II장에서 우리는 호를 협의인 ‘본명과 자를 대체하는 것으로 성인이 된 후 허물없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과 타인이 언제라도 실상을 반영해서 제멋대로 짓는 호칭'으로 정의하였고, 호라고 하면 본고와 같이 대부분 협의호를 말한다. 그러나 협의호 역시 정의만 살펴도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세부 호 종류와 작호자, 짓는 방식, 호에 담은 내용에 의한 작호 유형으로 나누어 보다 상세히 검토할 필요 또한 있다.

2. 유형

1) 세부 호 종류에 의한 분류

위 범위에서 살핀 협의호를 먼저 세부 호 종류로 분류하면 최협의호와 당호, 별호로 구분이 가능하다. 최협의호란 협의호 중에서 별도의 명칭을 가진 당호와 별호를 제외한 것으로, 통상 협의호와 혼용하여 많이 사용하지만 본고에서는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최협의호로 특정하였다. 당호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성찰의 공간으로 삼기 위해서 애초 집 이름으로 지어진 것을 호로 받아들인 것이다.

별호(別號)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첫째, 호의 동의어로 광의 개념인 '본명이나 자 외의 이름', 둘째, 별명의 동의어로 협의 개념인 '사람의 외모나 성격 따위의 특징을 바탕으로 남들이 지어 부르는 이름'으로 서로 다른 두 의미를 함께 소개하고 있다.²⁶⁾ 또한 별호는 셋째, '아호와 자호를 제외한 모든 호', 그리고 넷째, '특별한 범위 안에서만 활용하는 별도의 호'²⁷⁾를 지칭하기도 하는 등 개념의 혼선이 심하다.

이 중 첫째 광의는 별호가 호에 포함되는 한 종류이기에 호의 동의어로 볼 수가 없다. 둘째 협의도 별명 중에서 호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별호가

2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별호」(<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27) 심경호, 앞의 책, 42쪽.

아닌 별명이고 애초 스스로 작호한 별호는 별명이 아니므로 별명과 별호는 동의어가 아니다. 셋째 작호와 아호를 제외한 별호는 구분이 쉽지만 기타 호의 의미가 강해서 용어조차 부적절하다. 넷째 특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호는 특별한 범위가 모호하고 보명과 필명, 예명, 아이디 등 용도별 유형에 근접한 정의이기에 수용하기도 곤란하다.

그럼에도 둘째 협의의 전단 ‘사람의 외모나 성격 따위의 특징을 바탕으로’는 별호의 해학적인 특징이 잘 표현되어 있다. 하지만 호는 이름의 한 종류일 뿐 동의어가 아니기에 말미의 ‘이름’을 ‘호’로 바꾸어 별명을 배제하여 별호의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스스로도 짓는 호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서 ‘자신’까지 삽입하여, 별호의 정의는 ‘사람의 외모나 성격 따위의 특징을 바탕으로 자신이나 남들이 지어 부르는 호’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별호의 해학적인 특징과 더불어 별명에서 차용한 별호 및 당초부터 호로 지은 별호까지 포함하면서 타인과 더불어 자신도 짓는 호의 특징도 표현하여 보다 적절한 정의가 된다.

2) 작호자 중심의 분류

협의호는 작호자를 중심으로 자호(自號)와 아호(雅號), 별호(別號)로도 많이 분류한다. 먼저 자호는 자신이 지은 본인의 호를 말한다. 스스로 짓기 때문에 자신의 목표나 의지, 지향, 처지, 완호물(玩好物) 등의 실상을 잘 반영하고 우아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언제든지 제멋대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갖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인 두 글자보다 많은 글자로 지은 호도 상당히 존재한다.

아호는 타인이 지어주는 우아한 호이기에 경어(敬語)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시문이나 서화 등의 호는 대부분 우아하기에 문필가나 예술가의 호를 아호라고도 하지만,²⁸⁾ 이 중 스스로 지은 자신의 호를 높이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기에 아호로 볼 수 없다.²⁹⁾ 또한 아호가 호의 동의어라는 주장도 있지

만³⁰⁾ 아호는 타인이 지어주는 우아한 호를 지칭하는 호의 한 종류이기에 인정할 수가 없다.

세부 호 종류의 별호는 세인들이 주로 짓는 우아하지 못한 호이고 작호자 중심으로 분류한 별호는 자호와 아호를 제외한 기타 모든 호이므로 다른 의미이지만 명칭이 겹치는 혼선이 존재한다. 이에 본고는 협의호의 한 종류인 별호는 별명을 호로 받아들였거나 별명과 유사하게 작호되므로 별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기타 모든 호의 개념인 작호자를 중심으로 분류한 별호는 타호(他號)로 별칭하여 구분했다.

위 작호자에 의한 분류와 달리, 자호와 아호를 당사자 기준으로 자신의 호는 자호로, 타인의 호는 아호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는 호에 담은 내용과 상관없이 겸양(謙讓)이 바탕인 개념이므로 타당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아하지 못한 타인의 별호까지 높여서 아호로 분류해야하고,³¹⁾ 자신과 타인의 호 이외 다른 호가 존재할 수 없어서 기타 모든 호인 타호가 부정되는 등의 문제점도 있어서 본고는 작호자에 의한 분류를 중심으로 구분했다.

3) 짓는 방식에 의한 분류

호는 짓는 방식에 의해서 작호(作號)와 차호(借號)로도 양분한다. 우리는 호를 짓는다는 것을 너무 당연시 하지만,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당호와 별명 등 다른 용도로 지어진 것이나 인연 있는 곳과 물건 등의 명칭, 좋은 의미의 문구 등을 그대로 가져와서 호로 사용한 차호도 상당히 많다. 따라서 호를 짓는다는 표현조차 옳지 않다고 할 수도 있지만 넓게 보면 빌려서

28)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호」(<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3656>)

29) 신용호·강현규, 『선현들의 자와 호』, 전통문화연구회, 1997, 66쪽.

30) 위의 책, 66쪽.

3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아호」(<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

사용하는 차호 역시 호를 짓는 것이므로 틀린 표현은 아니다.

다만 작호는 지을 당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나 차호는 호로 차용할 시점이 아닌 애초 생성 당시의 의미도 살펴야 한다. 인연 있는 곳을 호로 삼은 소거와 같이 당초 명칭이 이미 명사나 고유명사 등으로 정착된 것은 그 자체를 호에서 취하지만, 경계 어구나 체득 실상, 애호 물건 등을 취한 당호 등은 당초의 의미를 호에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그 당시로 소급하여 작호를 검토해야 한다.

4) 호에 담은 내용에 의한 작호 유형 분류

앞에서 살펴본 한정주(2015)의 주장과 같이 세간에서도 작호법이 없다는 주장이 상당히 존재한다. 실제 2000년대 이후 명리용신작명법을 강조하는 작명가들 중심으로 제기된 소복(所福)유형 이외는 작호법을 찾기 힘들고, 앞서 살핀 호의 정의에서도 작호법이 없다고 인식될 만한 ‘제멋대로 짓는’도 삽입하였다. 호가 있기 때문에 작호는 당연히 존재하지만 제멋대로 짓는 것이 호의 특징이다 보니 별도의 특정 법칙으로 보편화가 쉽지가 않아서 작호법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신용호(1997)는 호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후 그에 맞게 짓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었으므로 이를 작호 법칙으로 본다고 하였다.³²⁾ 그러나 그 후에도 한정주(2015)는 작호 유형, 강희숙(2016)은 작호 방식, 이재승(2019)도 작호 유형이라고 하였을 뿐 작호법이라고 하지 않았다. 이에 작호를 살피고자 하는 본고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작호 법칙이 아닌 호에 담은 내용에 의해서 작호 유형으로 구분했다.

32) 강현규·신용호, 앞의 책, 38쪽.

〈표 1〉 호에 담은 내용에 의한 작호 유형

이규보	신용호	한정주	강희숙	이재승	본고	분류 기준 (대표적인 호)
소거	소처	소거	소거	소거	소거	거처나 인연 있는 곳 (퇴계, 율곡, 석봉, 고산, 거산)
소축	소축	소축	소축	소축	소축	간직하거나 좋아하는 사물 (석치, 공초, 청마, 차형)
소득	소지	소득 소지	소득	소득	소지	깨달음이나 목표, 의지 (간재, 성소, 백범, 호암)
-	소우	소우	소우	소우	소우	처한 상황이나 처지 (야은, 포옹, 해옹, 잉민)
-	-	소용	소용	소용	소용	용모나 성격 등의 특징 (내옹, 미수, 표암, 횡보)
-	-	소인	소인	소인	소인	존경, 본받고자 하는 인물 (완당, 오원, 외술, 목월)
-	-	소직	소직	소직	소직	하는 일이나 직업 (주경, 호생자, 청전산인, 옹기)
-	-	소전	소전	소전	-	문헌의 문구나 뜻 (-)
-	-	-	소성	-	소성	성격과 품성 (우수, 어우당, 우암, 궁재, 상허)
-	-	-	소명	-	소명	자신과 가족의 이름 (송헌, 잠상인, 유석, 금동)
-	-	-	-	소복	소복	당사자의 복을 불러주는 개운 (-)

호의 유형을 가장 최초 언급한 이규보(李奎報, 1168~1241)는 거처하는 곳을 호로 삼은 소거(所居)와 간직한 것을 호로 삼은 소축(所蓄), 얻은 바의 실상을 호로 삼은 소득(所得)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³³⁾ 이어서 신용호(1997)는 소거를 소처(所處), 소축은 그대로, 소득에 도달하고 싶은 경지를 더하여 소지(所志)로, 또한 자신이 처한 처지인 소우(所遇)도 추가하여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³⁴⁾ 한정주(2015)는 선행연구의 소거와 소축, 소득 혹은

33)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20, <白雲居士語錄>

34) 강현규·신용호, 앞의 책, 39쪽.

소지, 소우와 더불어, 자신의 용모나 신체적 특징에서 가져온 소용(所容)과 자신이 존경하거나 본받고자 하는 인물에서 찾은 소인(所人), 자신이 하는 일이나 직업을 빗대 삼은 소직(所職), 문헌의 문구나 뜻에서 취한 소전(所典)을 더하여 여덟 가지로 세분화했다.³⁵⁾ 또한 강희숙(2016)은 한정주의 여덟 가지에 당사자의 성격이나 품성에 의한 소성(所性)과 자신과 자녀의 이름을 반영한 소명(所名)까지 추가하여 열 가지,³⁶⁾ 이재승은 한정주의 여덟 가지를 밝힌 후 당사자의 복을 지키고 불러주는 소복까지 주장하여 아홉 가지의³⁷⁾ 작호 유형이 보인다.

본고도 점차 세분화된 작호 유형 분류에 동의한다. 그러나 분류 기준을 보면 당초 집 이름이었던 당호를 우리가 호로 받아들였지만, 당호가 아닌 경계 어구나 체득 실상, 애호 물건, 거주지 등의 당호를 지을 때 취한 내용을 호에서 다시 취한 것이기에 이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소전은 필요한 문구나 뜻을 호에서 취하였을 뿐 문헌을 취한 것이 아님에도 소전으로 구분하였으므로 이의 유형 구분에 동의하기는 곤란하다. 다른 유형과 달리 본명의 작명에 널리 활용되는 소복은 대개 구체물의 표현³⁸⁾인 실상이 반영되는 전통적인 작호와 상당히 다르지만, 법률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본명을 개명하기 곤란한 경우, 호를 통해서 개운하고자 하는 새로운 작명 문화도 실제 존재하기에 구분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표 1>과 같이 호에 담은 내용에 의해서 소거와 소축, 소지, 소우, 소용, 소인, 소직, 소성, 소명, 소복의 10개의 작호 유형으로 세분하여 살폈다.

35) 한정주, 앞의 책, 606-614쪽.

36) 강희숙, 앞의 논문, 27-28쪽.

37) 이재승, 『한국의 호문화에 대한 용신 성명학적 고찰』, 『인문사회21』 10(2), 아시아 문화기술원, 2019, 1432-1433쪽.

38) 강현규, 앞의 논문, 76쪽.

IV. 작호 분석

작호(作號)는 한정주(2015)의 『호, 조선 선비의 자존심』과 심경호(2022)의 『호, 주인옹의 이름』에서 확인한 호 1,418개 중에서³⁹⁾ 신용호·강현규(1997) 『선현들의 자와 호』 및 김은미(1998) 「추사 김정희의 호에 대한 연구」, 권정원(2008) 「자호를 통해 살펴본 이덕무의 삶의 지향」, 최준호(2012) 『추사, 명호처럼 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을 조사하여 시대와 호 종류, 작호자, 짓는 방식, 작호 유형 구분이 가능한 역사 속 인물 558명 914개의 호를 분석했다.

1. 총괄 분석

호를 분석한 558명은 『국순전』과 『공방전』을 지은 서하(西河) 임춘(林椿, 1149?~1182?)부터 윤정(雲庭) 김종필(金鍾泌, 1926~2018)까지 남성이 547명 98.0%, 901개 98.6%로 절대 다수이고 여성은 임벽당김씨(林碧堂金氏)와 신사임당(申師任堂), 허난설헌(許蘭雪軒) 등 11명 2.0%, 13개 1.4%에 불과했다. 김정희(金正喜)가 109개, 이덕무(李德懋) 20개, 정약용(丁若鏞)이 15개가 확인되었고, 1인당 1개가 420명 75.3%, 2개 90명 16.1%, 3~5개 43명 7.7%, 6~10개 2명 0.4%, 11개 이상이 위와 같이 3명 0.5%로 호는 하나만 가진 인물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두 글자가 580개 63.5%, 세 글자 183개 20.0%, 네 글자 124개 13.6%,

39) 우리나라의 모든 작호를 분석하면 가장 좋지만 조사 집단 선정이 쉽지 않았으므로 김춘동의 『한국한문학사(상)』과 『고려사』 「열전」, 신구문화사(1972)의 『한국인명대사전』 「한국인물연표」 인물의 호만을 조사한 신용호(1977)의 연구에서 착안하여 역사적 인물의 호가 상당히 많이 보이는 한정주(2015)와 심경호(2022)의 문헌에서 확인한 인명 호를 조사 집단으로 선정했다.

다섯 글자 17개 1.9%, 여섯 글자 이상이 10개 1.1%였고 한 글자는 없었으며, 가장 긴 호는 열두 글자 김정희의 상하삼천년종횡삼만리지실(上下三千年縱橫三萬里之室)이었다. 한자가 없는 한글 전용 호도 20~21세기 주시경의 한힌메와 한힌샘, 최현배의 외솔, 함석헌의 바보새, 문익환의 늦봄 등 4명 5개가 확인되었다.

〈표 2〉 총괄 분석 [단위: 건수, (%)]

시대		호 종류		작호자		짓는 방식		작호 유형	
세기	호수	구분	호수	구분	호수	구분	호수	구분	호수
12~15	73 (8.0)	최협 의호	684 (74.8)	자호	816 (89.3)	작호	470 (51.4)	소거	228 (24.9)
16~17	273 (29.9)	당호	203 (22.2)	아호	76 (8.3)	차호	444 (48.6)	소축	61 (6.7)
18~19	447 (48.9)	별호	27 (3.0)	타호	22 (2.4)	-	-	소지	274 (30.0)
20~21	121 (13.2)	-	-	-	-	-	-	소우	185 (20.2)
-	-	-	-	-	-	-	-	소용	17(1.9)
-	-	-	-	-	-	-	-	소인	63(6.9)
-	-	-	-	-	-	-	-	소직	30(3.3)
-	-	-	-	-	-	-	-	소성	41(4.5)
-	-	-	-	-	-	-	-	소명	15(1.6)
-	-	-	-	-	-	-	-	소복	0(0.0)
합계	914 (100)	합계	914 (100)	합계	914 (100)	합계	914 (100)	합계	914 (100)

협의호의 시대별⁴⁰⁾ 비중은 12~15세기 8.0%, 16~17세기 29.9%에서 조선시대 말 18~19세기 48.9%로 가장 높았다가 일제강점 이후인 20~21세기 13.2%로 줄어들었다(표2). 분석한 호 914개는 특정 문헌에서 확인된 호가 바탕이어서 전체 증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앞의 역사

40) 두 세기에 걸쳐서 생존한 인물은 성인이 된 후 특히 말년에 가까울수록 호를 많이 사용하므로 돌아가신 해를 기준으로 구분했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시대 말 정점에 달했다가 일제강점기에 급격히 줄어든 것은 확인된다. 호 종류는 취협의호가 74.8%로 상당히 높았고, 당호는 17세기 전반까지 조사한 신용호(1997)의 37.9%보다 적지만 22.2%였으며, 해학적인 별호는 3.0%에 불과했다(표2).

또한 전통사회는 자호가 일반적이었다는 강희숙(2016)의 주장⁴¹⁾과 같이 20~21세기 호가 적은 본고 역시 작호자로 분류하면 자호의 비중이 89.3%로 상당히 높고 아호는 8.3%, 타호는 2.4%로 낮았다. 짓는 방식을 보면 차호(借號)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고는 작호가 51.4%로 48.6%의 차호보다 조금 높은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표2).

10개 유형으로 분류한 호에 담은 내용에 의한 작호 유형은⁴²⁾ 소지가 30.0%로 비중이 가장 높고, 이어서 소거 24.9%, 소우 20.2%, 소인 6.9%, 소축 6.7%, 소성 4.5%, 소직 3.3%, 소용 1.9%, 소명 1.6% 순서이다(표2). 현대에서 호를 많이 사용하는 화가나 서예가, 유림 등을 조사 분석한 강희숙(2016)과는 소득 1순위, 소거 2순위만 같을 뿐이므로,⁴³⁾ 사용 시대와 집단 등에 따라서 작호 유형은 상당히 달라지는 것이 확인된다.

이름을 돌아보며 그 의미를 생각하는 ‘고명사의(顧名思義)’가 선인들 작명의 근본이었기에 넓게 보면 모든 호를 소지라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대부분 좋은 뜻이 포함되어 있기에⁴⁴⁾ 소지가 제일 높은 비중인 30.0%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어서 인연 있는 장소만 밝힐 뿐 호에 담은 내용을 숨기면서 사용하기도 편리한 소거가 2순위 24.9%이고, 앞의 역사에서 살핀

41) 강희숙, 앞의 논문, 19쪽.

42) <표 1>에서 대표적인 소거의 예로 퇴계(退溪)를 들었으나 퇴계는 ‘물러나다’는 소지의 의미도 함께 갖고 있다. 하나의 호가 퇴계와 같이 두 개 이상의 작호 유형에 속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 경우는 당사자나 선행연구 등에서 주로 밝힌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43) 강희숙, 앞의 논문, 27-29쪽.

44) 신용호·강현규, 앞의 책, 96쪽.

바와 같이 호의 출발과 관련이 깊은 소우도 3순위 20.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은 비중이 많이 떨어지는 본인의 기호에 의한 소인과 소축이 6.9%와 6.7%, 성격이나 품성이 반영된 소성이 4.5%로 뒤를 잇는다. 소직과 소용, 소명은 모두 4% 미만으로 높지 않아서 분류의 의미도 약하다. 21세기 이후 나타난 소복은 명리용신작명법 작명가 중심으로 자신의 복을 지키고 불러주는 본명의 작명법을 호에서도 주장하는 새로운 유형이기에 조사 인물이 사용한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소복은 현재 사용 중일 뿐만 아니라 세인들의 개운(開運) 추구 성향을 감안하면 향후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 비교 분석

비교 분석은 호에 담은 내용으로 분류한 작호 유형을 중심으로 시대와 짓는 방식, 호 종류와 작호자를 먼저 검토한 후, 시대를 바탕으로 호 종류와 작호자, 짓는 방식을 이어서 살펴본다. 또한 호 종류를 위주로 작호자와 짓는 방식, 그리고 작호자와 짓는 방식도 비교 분석한다.

〈표 3〉 작호 유형과 시대·짓는 방식의 비교 분석 [단위: 건수, (%)]

작호 유형		시대(세기)				짓는 방식	
구분	소계	12~15	16~17	18~19	20~21	작호	차호
소거	228 (24.9)	15 (20.5)	102 (37.4)	95 (21.3)	16 (13.2)	56 (11.9)	172 (38.7)
소축	61(6.7)	12(16.4)	6(2.2)	30(6.7)	13(10.7)	30(6.4)	31(7.0)
소지	274 (30.0)	15 (20.5)	71 (26.0)	137 (30.6)	51 (42.1)	141 (30.0)	133 (30.0)
소우	185 (20.2)	13 (17.8)	70 (25.6)	91 (20.4)	11 (9.1)	144 (30.6)	41 (9.2)
소용	17(1.9)	3(4.1)	3(1.1)	8(1.8)	3(2.5)	10(2.1)	7(1.6)
소인	63(6.9)	3(4.1)	10(3.7)	36(8.1)	14(11.6)	35(7.4)	28(6.3)
소직	30(3.3)	4(5.5)	0(0.0)	21(4.7)	5(4.1)	19(4.0)	11(2.5)
소성	41(4.5)	6(8.2)	8(2.9)	25(5.6)	2(1.7)	26(5.5)	15(3.4)

소명	15(1.6)	2(2.7)	3(1.1)	4(0.9)	6(5.0)	9(1.9)	6(1.4)
소복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합계	914 (100)	73 (100)	273 (100)	447 (100)	121 (100)	470 (100)	444 (100)

작호 유형과 시대를 먼저 비교 분석해보면, 소지가 16~17세기 소거에 밀리기는 했으나 다른 시대는 모두 1순위 20% 이상이면서 현대로 올수록 높아져서 20~21세기는 42.1%를 차지하였으므로 앞으로도 가장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호의 특성으로 비중이 높았던 2순위 소거와 3순위 소우는 16~17세기를 정점으로 낮아지고, 자신의 기호인 4순위 소인과 5순위 소축은 16~17세기를 저점으로 높아진 추세를 보면, 앞으로 소거와 소우보다 소인과 소축의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소성과 소직, 소용, 소명은 시대별로 순위 변동은 있지만 12~15세기 소성을 제외하면 전부 6% 미만이므로 앞으로도 많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표3). 하지만 현대 호를 분석한 강희숙(2016)은 소직이 3순위 10.9%, 소성이 4순위 10.6%의 비중으로 상당히 다른 결과가 도출되어⁴⁵⁾ 향후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소용은 용모나 신체, 성격 등의 좋지 못한 특징을 해학적으로 수용해서 관심이 많고 독립된 별호이기도 하나 모든 시대 5% 미만으로 본인의 단점을 호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음이 확인된다(표3).

짓는 방식에 의한 분류는 지명을 주로 차용하는 소거가 차호 38.7%로 작호 11.9%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고, 또한 소축이 차호 7.0%로 작호 6.4%보다 조금 높았다. 반면 소지는 30.0%로 같고 소우는 차호가 9.2%로 작호 30.6%에 비해서 상당히 낮으며, 소인과 소성, 소직, 소용, 소명 모두 차호가 작호보다 비중이 조금씩 낮다(표3). 따라서 차호의 비중이 높다고 알려진 호의 특징은 재확인 필요하다.

45) 강희숙, 앞의 논문 27-28쪽.

〈표 4〉 작호 유형과 호 종류·작호자의 비교 분석 [단위: 건수, (%)]

작호 유형		호 종류			작호자		
구분	소계	최협의호	당호	별호	자호	아호	타호
소거	228 (24.9)	216 (31.6)	11 (5.4)	1 (3.7)	220 (27.0)	5 (6.6)	3 (13.6)
소축	61(6.7)	33(4.8)	24(11.8)	4(14.8)	60(7.4)	1(1.3)	0(0.0)
소지	274 (30.0)	183 (26.8)	91 (44.8)	0 (0.0)	222 (27.2)	48 (63.2)	4 (18.2)
소우	185 (20.2)	147 (21.5)	35 (17.2)	3 (11.1)	180 (22.1)	2 (2.6)	3 (13.6)
소용	17(1.9)	2(0.3)	1(0.5)	14(51.9)	11(1.3)	0(0.0)	6(27.3)
소인	63(6.9)	45(6.6)	18(8.9)	0(0.0)	56(6.9)	7(9.2)	0(0.0)
소직	30(3.3)	20(2.9)	10(4.9)	0(0.0)	26(3.2)	3(3.9)	1(4.5)
소성	41(4.5)	27(3.9)	11(5.4)	3(11.1)	29(3.6)	9(11.8)	3(13.6)
소명	15(1.6)	11(1.6)	2(1.0)	2(7.4)	12(1.5)	1(1.3)	2(9.1)
소복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합계	914(100)	684(100)	203(100)	27(100)	816(100)	76(100)	22(100)

협의호의 74.8%인 최협의호는 소거가 31.6%, 소지 26.8%, 소우 21.5%, 소인 6.6%, 소축 4.8%, 소성 3.9%, 소직 2.9%, 소명 1.6%, 소용 0.3%의 순서로 소거와 소지, 소명과 소용의 순위가 바뀌었을 뿐 협의호와 순서가 동일하다. 22.2%인 당호의 비중은 소지가 44.8%. 소우 17.2%, 소축 11.8%, 소인 8.9%, 소거와 소성 5.4%, 소직 4.9%, 소명 1.0%, 소용 0.5%로 소지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 점과 소거가 5순위로 낮아진 점, 소축과 소인, 소명과 소용의 순위가 바뀌는 등 협의호와 순위 및 비중이 많이 상이하다. 협의호의 3.0%에 불과한 별호는 소용 14건 51.9% 외에 다른 유형이 최대 4건에 불과할 정도로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표4).

분석해보면 소거는 총괄 분석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작호와 사용이 편리해서 최협의호에서 1순위로 비중이 높고, 좁은 장소 명칭인 당호를 넓은 장소 명칭인 소거로 작호하면 중복되기에 5순위로 상당히 적게 사용한 것도 보인다. 또한 경계 어구로 주로 지어서 성찰의 공간으로 삼았던 특징 때문에

다른 작호 유형보다 당호의 소지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 역시 확인된다. 또한 별호에서 소용이 51.9%로 높은 것은 용모나 성격 등 좋지 못한 당사자의 특징을 주로 담는 소용과 별호의 작호가 유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작호자로 분류한 자호의 비중은 소지 27.2%, 소거 27.0%, 소우 22.1%, 소축 7.4%, 소인 6.9%, 소성 3.6%, 소직 3.2%, 소명 1.5%, 소용 1.3%의 순서이다(표4). 이를 보면 소축과 소인, 소명과 소용의 순위만 바뀌었을 뿐 1~3순위인 소지와 소거, 소우의 비중이 20%~30%이면서 순위도 같은 등 협의호와 유사하다. 하지만 우아함이 바탕인 아호는 그 특징 표현에 좋은 소지만 63.2%로 높고 다음 순서인 소성 11.8%와 소인 9.2%, 소거 6.6%로 상당히 낮아지며 소직과 소우, 소축, 소명, 소용은 모두 3건 3.9% 이하로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표4). 타호는 전체 914건의 2.4% 22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자호와 아호를 제외한 기타 호이기 때문에 분석조차 의미가 약하다(표4).

〈표 5〉 시대와 호 종류·작호자·짓는 방식의 비교분석 [단위: 건수, (%)]

시대		호 종류			작호자			짓는 방식	
세기	세기 소계	최협의 호	당호	별호	자호	아호	타호	작호	차호
12~ 15	73 (8.0)	43 (6.3)	27 (13.3)	3 (11.1)	64 (7.8)	6 (7.9)	3 (13.6)	27 (5.7)	46 (10.4)
16~ 17	273 (29.9)	218 (31.9)	51 (25.1)	4 (14.8)	261 (32.0)	6 (7.9)	6 (27.3)	122 (26.0)	151 (34.0)
18~ 19	447 (48.9)	324 (47.4)	111 (54.7)	12 (44.4)	399 (48.9)	40 (52.6)	8 (36.4)	242 (51.5)	205 (46.2)
20~ 21	121 (13.2)	99 (14.5)	14 (6.9)	8 (29.6)	92 (11.3)	24 (31.6)	5 (22.7)	79 (16.8)	42 (9.5)
합계	914 (100)	684 (100)	203 (100)	27 (100)	816 (100)	76 (100)	22 (100)	470 (100)	444 (100)

〈표 5〉의 호 종류별 시대 비중(건수÷호합계×100)을 살펴보면 최협의호나 당호, 별호 모두 18~19세기까지 증가하였다가 20~21세기에는 많이 감소

하였다(표5). 이와 다른 시대별 호 종류의 비중(건수÷세기소계×100)도 살펴 보면 최협의호는 12~15세기 58.9%, 16~17세기 79.9%, 18~19세기 72.5%, 20~21세기 81.8%로 18~19세기에 조금 감소한 것 외는 현대로 올수록 증가하였으므로 향후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당호는 20~21세기에 11.6%로 상당히 줄었을 뿐만 아니라 1960년대 이후 한 건도 없어서 소멸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며, 별호는 20~21세기 6.6%로 늘어났으나 시대별로는 모두 3~12건에 불과해서 명맥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표5).

작호자 중심의 분류 중 자호는 시대별 증감과 비중이 거의 동일하다. 아호는 적은 건수 때문에 의미가 약하지만 현대에 가까울수록 자호보다 아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표5). 또한 전통사회는 대부분 자호였으나 현대는 비중이 아주 낮고, 스승이나 지인, 친구 등 작호 주체가 다양해졌다는 강희숙(2016)⁴⁶⁾의 연구 결과까지 감안하면 현재는 아호의 비중이 높다고도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자호보다 아호의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짓는 방식은 12~15세기와 16~17세기까지 차호가 높았다가 18~19세기 작호 비중이 높아진 후 20~21세기는 더욱 높아져서 향후도 작호가 더욱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표5).

〈표 6〉 호 종류와 작호자·짓는 방식의 비교 분석 [단위: 건수, (%)]

호 종류		작호자			짓는 방식	
구분	소계	자호	아호	타호	작호	차호
최협의호	684(74.8)	627(76.8)	48(63.2)	9(40.9)	457(97.2)	227(51.1)
당호	203(22.2)	176(21.6)	27(35.5)	0(0.0)	0(0.0)	203(45.7)
별호	27(3.0)	13(1.6)	1(1.3)	13(59.1)	13(2.8)	14(3.2)
합계	914(100)	816(100)	76(100)	22(100)	470(100)	444(100)

작호자 중심으로 보면 자호는 호 종류와 비슷한 최협의호 76.8%, 당호

46) 강희숙, 앞의 논문, 30쪽.

21.6%, 별호 1.6%인 반면, 아호는 우아함을 담기에 좋은 당호만 35.5%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다. 한편 당사자의 용모나 성격 등 좋지 못한 특징을 주로 수용한 별호는 우아함과 거리가 있어서 아호가 1건 1.3%에 불과하다(표 6). 짓는 방식에서 최협의호는 차호보다 작호의 건수가 두 배 이상이지만 당호는 집 이름을 차용하였기에 전부 차호이다(표6). 또한 용모나 성격 등 좋지 못한 당사자 특징이 반영된 별명을 해학적으로 받아들여서 많이 알려진 별호는 친구 등 타인이 지은 별명을 호로 받아들인 차호 3.2%와 더불어 자신의 좋지 못한 특징으로 스스로 지은 작호도 2.8%로 비중이 아주 낮다(표 6).

〈표 7〉 작호자와 짓는 방식의 비교 분석 [단위: 건수, (%)]

작호자		짓는 방식	
구분	소계	작호	차호
자호	816(89.3)	421(89.6)	395(89.0)
아호	76(8.3)	43(9.1)	33(7.4)
타호	22(2.4)	6(1.3)	16(3.6)
합계	914(100.0)	470(100.0)	444(100.0)

작호자와 짓는 방식을 분석해보면 타호는 작호보다 차호의 비중이 높지만 건수가 적고 기타 호 개념이기 때문에 분석 의미가 별로 없다. 하지만 많은 건수로 분석 의미가 강한 자호와 아호는 차호보다 작호의 비중이 조금 높기 때문에 신용호(1977)의 연구 등을 바탕으로 차호의 비중이 높다고 알려진 호의 특징이 옳지 않은 것이 다시 확인된다(표7).

V. 맺음말

호는 범위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고, 구분 기준이 다른 종류를 같은 명칭으

로 사용하는 등 개념의 혼선도 존재한다. 특히 작호는 작명과 동일시될 뿐 별도의 작호법을 찾기도 힘들다. 호는 이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실상 반영 등으로 중요하지만 선행연구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에 본고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호의 의의와 역사, 범위와 유형을 검토하여 호의 개념을 파악한 후, 역사 속 인물의 작호를 중점적으로 검토 및 분석했다.

호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허물없이 사용하는 성인의 이름’, 부연하면 ‘본명과 자를 대체하는 것으로 성인이 된 후 허물없이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과 타인이 언제라도 실상을 반영해서 제멋대로 짓는 호칭’이다. 경명사상과 피휘 때문에 성인이 된 후 본명은 관이나 윗사람에게만 사용하였고 그 외는 자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자 역시 경명대상에 포함되면서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는 호칭은 호가 되었다. 실상을 반영하여 스스로도 언제든지 제멋대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호는 여러 개를 가질 수도 있고 글자 수의 제약도 없다. 중국의 영향을 받은 호는 신라 자비왕대 백결을 시작으로 14세기부터 급격히 늘어나 조선시대 말에는 상층인 양반 남성의 대부분이 사용하였다. 하지만 군주제가 사라지자 피휘가 없어지고 경명사상도 약해지면서 호는 급격히 줄어들기는 했으나 현재도 문인과 예술인, 학자 등은 상당수, 일반인도 일부가 사용 중이다.

호의 범위는 본명이나 자 외의 모든 이름인 최광의호와 호유형인 광의호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협의 개념인 자신과 타인이 실상을 반영하여 지은 본명과 자를 대체하는 성인의 호칭을 말한다. 협의호도 범위가 넓기에 다시 분류해보면, 호 종류에 의해서 최협의호와 당호, 별호로 나눌 수 있고, 작호자를 중심으로 자호와 아호, 타호로도 구분 가능하다. 또한 짓는 방식으로 작호와 차호로 양분되고, 호에 담은 내용에 의한 작호 유형으로 소거와 소축, 소지, 소우, 소용, 소인, 소직, 소성, 소명, 소복으로도 세분 가능하다. 이 분류 중 별호는 개념의 혼선이 특히 심해서 본고는 호 종류로 분류한 별호를 ‘사람의 외모나 성격 따위의 특징을 바탕으로 자신이나 남들이 지어 부르는 호’로 정의하면서 별명과 유사하기에 별호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작호자

중심으로 분류한 별호는 자호와 아호를 제외한 기타 모든 호의 개념이 강하기에 타호로 별칭했다.

역사 속 인물 558명의 914개 호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남성이 98.6%, 1인당 1개호를 가진 경우가 75.3%, 두 글자 호가 63.5%로 다수였다. 협의호는 18~19세기 가장 많았다가 20~21세기 급격히 줄어들었고, 호 종류는 취협의호 74.8%와 당호 22.2%, 별호가 3.0%였다. 작호자로 분류하면 자호 89.3%와 아호 8.3%, 타호 2.4%이고, 짓는 방식으로 나누면 작호 51.4%, 차호 48.6%이다. 호에 담은 내용에 의한 작호 유형은 소지 30.0%와 소거 24.9%, 소우 20.2%에 이어서 7% 이하인 소인과 소축, 소성, 소직, 소용, 소명 순서로 세분된다.

본고에서 살펴본 내용을 작호 중심으로 주요 시사점을 결론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작호는 어렵지 않아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어떤 연구나 문헌도 본명에 준한다는 작호만 주장될 뿐 별도의 작호법을 찾기가 힘들다. 세간에서도 작호법이 없다는 주장이 상당히 많고, 호의 정의에서도 ‘제멋대로 짓는’을 삽입하여 작호법이 없다고 인식될 만한 여지도 제공했다. 호가 있으면 작호는 당연히 존재함에도 별도의 특정 법칙으로 보편화가 쉽지가 않아서 작호법이 없다고 본 것이다. 호는 특정 법칙이 아닌 제멋대로 짓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짓기가 어렵지 않아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둘째, 작호 유형은 소지, 소인, 소축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시대별로 변화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소지는 작명의 근본으로 대부분의 호에 포함되어 있고 16~17세기 외 모두 1순위였으며 현대에 가까울수록 높아졌으므로 향후 더욱 높아질 것이 예상된다. 2·3순위 소거·소우는 16~17세기를 정점으로 낮아졌고 4·5순위 소인·소축은 16~17세기를 저점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소인·소축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소성과 소직, 소용, 소명은 시대별 변동은 있으나 대부분 6% 미만으로 앞으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강희숙의 연구 결과는 상당히 달라서 예측이 쉽지 않다.

특히 소용은 당사자의 좋지 못한 특징을 수용하였기에 널리 알려져 있으나 모든 시대 5% 미만으로 명맥만 유지되었으므로 단점을 호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음이 분석된다. 또한 21세기 새로운 유형인 소복은 본고에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대인들의 개운 추구 성향을 보면 향후는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호 종류 중 최협의호는 비중이 증가하고, 당호는 소멸, 별호는 명맥만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4.8%로 높은 최협의호는 현대에 올수록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향후에도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소거가 낮고 소지가 높은 협의호의 22.2%를 차지했던 당호는 20~21세기에 상당히 줄어들었고 1960년대 이후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아서 소멸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아호가 거의 없고 작호가 유사해서 소용만 많았던 별호는 20~21세기에 비중이 늘어났으나 협의호의 3.0%, 시대별 건수 역시 3~12건에 불과해서 앞으로 명맥만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작호자 중심의 분류로 살펴보면 자호보다 아호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살펴본 전체 협의호는 자호의 비중이 89.3%로 높고 아호는 8.3%로 낮지만, 소지가 높았던 아호는 현대에 이룰수록 자호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졌다. 강희숙(2016)의 연구에서도 전통사회는 대부분 자호였으나 현대는 그 비중이 낮아지고 아호가 많아졌다고 한다. 따라서 향후 자호보다 아호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섯째, 짓는 방식으로 분류하면 작호가 차호보다 많고 향후는 더욱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당우나 지명, 별명, 문구 등을 차용한 경우가 많으므로 차호가 작호보다 많다고 알려져 있으나, 협의호 전체도 작호가 51.4%로 차호 48.6%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호 종류 역시 특성상 당호만 전부 차호일 뿐 최협의호는 작호가 차호의 두 배 이상이다. 작호 유형도 소거와 소축을 제외한 소우와 소인, 소성, 소직, 소용, 소명 등은 작호가 많다. 또한 시대별로 보면 16~17세기까지는 차호가 많았으나 그 후는 작호가 많았고, 현대에 이룰수록 작호의 비중 또한 높아졌다. 따라서 알려진 것과 달리 짓는 방식에

의한 분류는 작호가 차호보다 많고, 향후도 작호가 더욱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끝으로 본고는 특정 문헌의 호를 1차 자료로 조사하여 모집단인 역사 속 모든 사람의 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표본 선정에 한계가 있다. 또한 12~21세기 아주 오랜 세월의 호를 조사 분석했기 때문에 호의 숫자 이면에 담긴 사회·문화적 분석까지 하지 못한 점, 그리고 자호와 아호, 작호와 차호 구분 등도 확인된 자료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 등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는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면서 호의 개념과 역사 속 인물의 작호를 분석한 본고가 우리 이름 문화의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사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東國李相國集』

단행본

강현규·신용호, 『한국인의 자·호 연구』, 계명문화사, 1990.

김승호, 『김정희법서선집』 권7(하), 대명, 2000.

신용호·강현규, 『선현들의 자와 호』, 전통문화연구회, 1997.

심경호, 『호, 주인옹의 이름』, 고려대 출판문화원, 2022.

오제봉, 『청남고도관』, 일지사, 1984.

최준호, 『추사, 명호처럼 살다』, 아미재, 2012.

한정주, 『호, 조선 선비의 자존심-조선 500년 명문가 탄생의 비밀』, 다산초당, 2015.

于大成, 『文字文學文化』, 台北: 文鏡文化事業公司, 1982.

논문

강현규, 「한국인의 자 및 아호에 관한 연구」, 『논문집』 7(2), 공주교대, 1970.
강희숙, 「현대 한국인의 호 사용 양상 연구」, 『한국사전학』 28, 한국사전학회, 2016.

권익기, 「인명의 종류 고찰-역사와 유형별 종류, 논란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82,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22.

권정원, 「자호를 통해 살펴본 이덕무의 삶의 지향」, 『동양한문학연구』 26, 동양한문학회, 2008.

김은미, 「추사 김정희의 호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신용호, 「선대사류의 자호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7.

심경호, 「이름과 호의 한자문화」, 『어문연구』 46(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8.

이재승, 「한국의 호문화에 대한 용신 성명학적 고찰」, 『인문사회21』 10(2), 아시아문화학술원, 2019.

기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Abstract

A STUDY ON THE CONCEPT OF HO AND HO'S NAMING

KWON IKKI (KWON, IK KI),
CHO MINKWAN (CHO, MIN KWAN)

This paper mainly examines the concept of Ho, and Ho's naming of characters in history. There is also the concept of broadest-sense-Ho and broad-sense-Ho, but the concept of narrow-sense-Ho is common because the Ho is the name of an adult who uses it without any problems for anyone. However, the scope of narrow-sense-Ho was wide, so it could be classified by Ho-type, namer-type, naming-method, and naming-type.

The Ho was something upper-class men had one of per person, and it usually consisted of two characters. By period, it gradually increased after starting in the Three Kingdoms period, reaching its peak at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n sharply decreased. Among the narrow-sense-Ho, the Ho-type accounted for narrowest-sense-Ho 74.8%, Dangho 22.2%, and Byeolho 3.0%. Also the namer-type accounted for Jaho 89.3% and Aho 8.3%. Furthermore, the naming-type had a high proportion of soji, sogeo, and sowu.

To summarize the implications, the first, Ho's naming is not difficult, so anyone can do it. The second, naming-type changes with the times, such as an increase in the proportion of soji, sojin, and sochuk. The third, the increase of narrowest-sense-Ho, the disappearance of the Dangho, and

the maintenance of Byeolho are expected. The fourth, the proportion of Aho is increasing compared to Jaho. And the fifth, contrary to what is known, there are more Jakho than Chaho.

Key Words : Ho, Ho's naming, Dangho, Byeolho, Jaho, Aho, Nameology